

정당·직업·학력·연령별 지방선거 후보자는?

등록 2014.05.17 18:33:21 | 수정 2016.12.28 12:46:27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6월 지방선거 후보등록 결과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 수가 다른 당 후보자 수를 압도하는 것으로 17일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오후 6시까지 각급 지방선거 후보등록을 받은 결과 전체 8900여명 중 새누리당 후보는 모두 3126명이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2428명, 통합진보당 520명, 정의당 158명, 노동당 112명, 새정치당 36명, 녹색당 23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501명이었다.

직업별로는 정치인이 21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의원 1508명, 농축산업 748명, 상업 562명, 회사원 360명, 건설업 201명, 교육자 189명, 공무원 146명, 약사·의사 42명, 운수업 35명, 수산업 34명, 금융업 24명, 출판업 17명, 언론·인·변호사·정보통신업 각 15명, 광공업 12명, 종교인 5명 순이었다. 무직은 361명, 기타는 2457명으로 집계됐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27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학원 졸업 1870명, 고졸 1041명, 전문대 졸업 1011명, 대학원 재학 398명, 대학 재학 388명, 대학원 수료 369명, 대학교 중퇴 252명, 중졸 165명 순이었다. 독학은 15명이었다.

연령별로는 50~59세가 42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49명 2344명, 60~69세 1647명, 30~39세 484명, 70세 이상 133명, 30세 미만 72명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7063명, 여성은 1849명이었다.

daer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